

# 이렇게 들었다

## 노인공경

### “모든 어르신 우리의 부모”

■만약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혹 부모를 죽이는 데까지 이룬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록 나오려 해도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지장경>

■부모님께 근심을 더해드리지 말고, 마땅히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이 병이 나셨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급히 의사를 모셔 치료하라.

<시가라왕육방예경>

■자식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적 활동을 생각함이다. 둘째는 일찍 일어나 때에 맞추어 밥을 지음이다. 셋째는 부모의 근심을 더하게 아니함이다.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함이다. 다섯째는 부모가 병들었을 경우, 의사를 구해 치료함이다.

<육방예경>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매년 이 날이 오면 노인 복지 관련 학술세미나를 열고, 혹은 복지관 같은 곳에서는 선물을 전달하는 등의 행사를 마련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회성 행사라는 것이다. 매년 반복적인 행사로 이 날을 맞는 과정에서, 우리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보다는, 그 형식에 매몰되는 감이 없지 않다. 지난 2일 여든이 된 할머니가 자식들의 외면을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병을 앓아온 일흔 살 할아버지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 외딴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효 정신이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모든 것이 인연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고 볼 때, 이들 어르신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부모들이다. <부모은중경>에서 부처님은 남방으로 가다가 뼈 한 무더기를 보고 오체투지로 정중하게 예배한 후 아난과 대중들에게 “이 뼈 무더기는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일 것이므로 내가 예배한 것이다”라고 설법했다. 이 말 씀은 오늘날 우리가 조상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부처님께서는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서 “의식을 제공받은 하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중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부모님 공덕을 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은 상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며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등에 아버지를 업고서 수미산을 백천 번 돌아서 살가죽이 터져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 골수가 드러나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으리라”고도 하셨다.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그 과보는 자식에게 이어지고, 그 자식 또한 후손으로부터 공양받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 온갖 부처님의 지극한 효행을 본받아 행했으므로 덕이 높아지고 복이 왕성해져, 마침내는 부처가 되어 삼계에 독보하게 되었느니라”고 설한 부처님의 뜻을 간절히 좇아야 할 때이다.

오종욱 기자

# 요행 바라는 사회... “복권엔 행복없다”

## 불자 세상보기

오래 전에 친구와 등산을 겸해서 어느 절에 스님을 만나러 갔다. 작은 읍내에서 절 입구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친구가 지루하다며 복권을 여러 장 샀다. 종이 패널을 굽어 그 자리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었다. 당장 확인하려는 친구의 욕구를 간신히 달래며 절까지 갔다.

스님을 만나 우리는 복권 두어 장을 내밀고 우리도 서너 장씩 확인했다. 친구는 같은 그림이 두 개만 나오면 높아진 당첨가능성에 흥분하면서, 노름꾼이 화투장 퍼드 조심스럽게 굽어 내려갔다. 그러나 오백원짜리도 한 장 당첨되지 않고 모두 ‘꽂’이었다.

스님은 우리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

더니, 타는 촛불에 불을 붙여 복권을 태워 버렸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복받을 짓을 했다고 복을 기다리느냐? 복 받을 만한 일을 한번 말해 보라! 나는 평생 악업(惡業)만 지은 사람이라 화가 미칠까봐 겁이 나서 이런 거 못한다” 하시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복권을 사지 않는다. 내 식구의 꿈을 과장 해몽하고, 선동하여 사게 하지도 않는다. 남이 주는 복권도 받지 않는다. 스님의 말씀처럼 ‘나의 악행을 알아차리고 발할까, 혹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행복마저 빼앗길까’ 두렵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사회가 복권천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민들이 일년간 복권(경매/경

## 사행성 산업 날로 확대

### “주어진 福부터 지키자”

문포함 사는데 쓴 돈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경기 승패를 놓고 돈을 거는 오락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심지어 어떤 드라마는 극의 전개과정을 묻는 복권을 내 놓기도 했다.

이런 요행심리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모름지기 ‘쾌락주의자’다. 복권은 오락이고, 그것은 쾌락을 위해서다. 그러면 인간은 왜 쾌락을 추구하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 마리의 제비가 여름을 부르지 않듯이, 한 순간의 쾌락으로 행복해

지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니코 마쿠스 율리우스)의 말처럼, 쾌락의 총합이 행복은 아니다.

복권은 순간적인 쾌락을 준다. 그러나 복권을 굽는 순간의 쾌락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쾌락과 행복의 관계는 날씨와 기후의 관계와 같다. 쾌락은 하루의 날씨처럼 변덕이 심하다. 그러나 날씨가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기후가 바뀌지 않듯이 행복이란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쾌락으로부터 온다. 복권을 통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쾌락의 궁극 목적인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어디 한국인뿐이겠는가? 유럽은 분명 우리보다 더하다. 하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사행성 문화와 유럽의 그것은 다르다)



구승희

동국대 교수  
윤리학

공동체의 게임 법칙이 예측 가능한 공정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요행을 바라는 심리는 훨씬 덜할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가난뱅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조폭도 잘만하면 월급 팔백팔십만원짜리 사장이 될 수 있는 사회, 오백원짜리 복권 한 장 사들고 마치 1억원에 당첨된 듯이 착각 속에서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복권의 1등 당첨확률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택’도 없는 대권주자들이 날뛰는 사회, 더욱이 그런 요행을 얻은 자에게 ‘신식인’이라는 근사한 ‘왕관’을 씌워주는 사회에서 한탕과 대박을 향한 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복을 더해주는 복표 말고, 주어진 작은 복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복-지킴이’가 있다면 나는 살 것이다.

# 열린마당

## 사찰 결혼식

### “불자가정 만들기 한몫”

#### 전대식 <불교사 업무조정실장>

불교사에서는 92년부터 결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도회 봉사자들로 구성된 20여명의 회원이 일주일에 2-3명씩 번갈아 근무하면서 결혼 상담을 하고 있다. 가입된 회원은 1천여 명이 넘지만 1년에 3-4건 정도 성사되는 편이다. 이들 중 좋은 인연이 이루어져 사찰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주지 스님은 부부에게 ‘마음다스리는 글’을 담은 액자나 석주 큰스님의 친필 휘호 등을 선물로 주고 부부는 그에 대한 답례로 불교사에 동참하기도 한다. 또한 신도회에서는 합창단이 축하를 불러 주기도 하고 신도회에서는 축의금이나 화환을 보내주기도 한다.

일평생 한 번 있는 결혼을 사찰에서 갖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주로 대우를 또는 미루 부처님 앞 광장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은 나름대로의 맛이 있다. 전통사찰의 양식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전각들을 앵글로 잡을 수 있고 푸른 녹지를 초점으로 맞춰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소란하기도 하지만 부러운 듯 바라보는 시선도 많다.

특히 젊은 세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많다.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극력양생을 기원하는 재공양 의식이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결혼식을 축하하는 하객들을 상대로 하는 포교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불교사에서 맺어지는 부부에게는 항상 범구(범句)가 들어 있는 액자 턱으로 자연스러운 불자 가정이 생겨난다. 고요하고 엄숙해야 할 사찰이 조금 소란하다고 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찰 내에 평생의례의 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절에서의 과제는 어떻게 결혼식을 불교다운 법식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다. 석문의법에 나와 있는 결혼 의식도 있지만 엔지 흥분하지 못한 감이 있다. 성스러운 의식을 갖춘 사찰결혼식은 포교의 방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 시즌이 되면서 사찰결혼식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찰결혼식을 권하는 사찰들은 불자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만한 결혼식이 될뿐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는 당사자와 하객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효과도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사인연을 맺어주는 결혼식을 사찰에서 올리는 것이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양측 의견을 들어본다.

### “수행처 세속화 우려”

#### 이제열 <유마선원장>

근래 들어 불교의 위상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찰의 활동도 변화되고 있다. 주로 기도와 법회 같은 신행활동의 공간이던 사찰이 각종 모임이나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중생을 설교하여 포교의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한편으로 수행처라는 사찰 고유의 전통성이 훼손된다는 점에서는 비판하고 있다. 사찰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그렇다. 언제부터 절에서 스님들이 주례를 서고 예식공간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스님들에게 있어 결맞는 행위도 아니고, 사찰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합당한 일이 아니다.

우선 스님이 혼례를 주선하는 행위는 계율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율장에서 부처님은 비구가 여거지기를 왕래하면서 중매를 서거나 혼사를 이루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셨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혼례를 주선한 비구가 세간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이 있어 부처님께서 주중과 함께 계율을 내리신 바 있다. 좋은 인연 맺어주고 스님이 축원을 해주면 그보다 큰 공덕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왜 부처님께서 이같은 일을 말리셨는지는 숙고해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 사찰의 기능면에서도 그렇다. 사찰은 청정처이다. 청정처에서는 세속의 잡다한 인연사를 쉬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사찰의 분위기는 그 청정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포교도 좋고 방편도 좋지만 불교가 세속적 분위기로 바뀌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꼭 사찰에서 예식장 같은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면 사찰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해서 할 수도 있다. 스님의 역할도 결혼을 할 사람들에게 주례를 서기보다는 그들로부터 공양을 받고 법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기고

### 테러와 보복 폭력 악순환 ‘관용’ 절실하다



정웅기  
제가연대  
시민사회국장

“소수의 전체 국가와 함께 맞서고 있는 우리의 청과 방패에 축복을 내려 주소서” 언뜻 보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구호 같지만, 실은 미국 테러 참사 후 열린 기도회에서 밌스펠드 부통령이 읽은 기도문이다. 이 말을 듣고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하지만 상행인식의 차이는 접어들어도 섬뜩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전쟁의 상진인 항과 방패의 신의 축복을 빌다. 원수를 완벽하게 때려눕힐 힘을 달라는 기도가 도대체 말이 되는가.

섬뜩하기는 원인을 제공한 과격 테러분자들도 마찬가지다. 무고한 시민 수천 명이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희생됐다.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미제국주의의 양민학살과 똑같은 죄악이다. 테러로 인해 숨진 뉴욕과 워싱턴의 양민들과 미군 폭격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베트남, 이라크의 양민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단순하면서도 절박한 이 교훈의 실천만이 폭력의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다. 먼저 종교가 나서 ‘복수’, ‘응징’의 신봉이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해야 한다. 미국 종교인들은 아프간으로 출병하는 미군의 안병을 축복하기 앞서 미국 정부와 국민이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양민희생 반대, 전쟁반대’를 울기 있게 주장해야 한다.

아랍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슬람은 먼저 자신들의 풍부한 종교성을 살려 테러가 교외에서 벗어난 행위임을 천명하고,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자체 조사와 국제사회 이철 등을 수용해야 한다. 불교는 자비무적(慈悲無敵)의 정신을 인류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폭력의 악순환은 종결될 수 없다는 평화와 비폭력의 정신을 펼쳐 나가야 한다. 21세기 종교는 이때 비로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 인터뷰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님으로부터 전수 받은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출신식(2개월 50만원), 출혈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지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수구로(2개월 150만원), 유허간장(2개월 50만원), 유허된장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김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진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계)와 감시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건강 식품으로 40여년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 료 효성양방 · 한방병원**  
총판 법인 이사장 김시연 합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출신식(松仙食)」, 「출혈소정액(松靜素精液)」, 「익수영진고」, 「지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법륜 합장